조던 오카다 **‘98**의 돌아온 여정

활기찬 미드퍼시픽 공동체의 중심에 헌신과 봉사의 진정한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드퍼시픽 인스티튜트 동문회(MPIAA)의 현 회장인 1998년 졸업생 조던 오카다입니다. 1992년 7학년으로 시작한 그의 여정은 동문회 이사회 수장으로서의 역할까지, 그의 모교와의 끊임없는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드퍼시픽에서의 초기 시절

조던의 미드퍼시픽과의 인연은 7학년에 입학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학생회부터 크로스 컨트리와 육상까지 다양한 활동에 빠르게 참여했어요. 또한 사회과목 수업에서 조교로 활동하며 일찍부터 리더십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죠.

"나는 언제나 MPI에서 동료와 교사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양육적인 환경이 나의 학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발전도 촉진했어요"라고 조던은 회상합니다. 그의 미드퍼시픽 시절은 학업과 스포츠뿐만 아니라 평생 지속될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했어요. "그 시절 맺은 우정은 지금도 강해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예전 동급생들과 함께 동문회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보람찬 일입니다."

직업 및 개인 여정

1998년 졸업 후, 조던은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에서 고등 교육을 받으며 MPI가 구축한 기초를 다졌어요. 그는 가족 사업인 오카다 트럭킹 컴퍼니에 합류하여 총괄 매니저 역할로 성장했어요.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의 비즈니스 역량을 더욱 강화했죠.

"나의 경력과 개인 생활은 미드퍼시픽에서 습득한 가치에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학교가 강조하는 존중, 책임, 지역사회 봉사는 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어요"라고 조던은 말합니다.

성장과 적응의 유산

조던의 미드퍼시픽에 대한 헌신은 그가 아들과 함께 미드퍼시픽의 유치원을 선택하면서 개인 생활로도 이어졌어요. 탐구를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매료되어 선택한 것이죠.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라고 그는 미소 지으며 아들이 자신이 다녔던 유치원에 합격한 날을 회상합니다.

2021년, 조던은 MPIAA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빠르게 회장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의 리더십 아래, 이사회는 MPIAA 골프 토너먼트와 동문 파이나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올스 포 올스 보조금과 동문 유산 장학금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어요.

"MPIAA 이사회는 단순한 옛 학생들의 모임이 아니라, 미드퍼시픽의 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팀입니다. 이는 되돌려주고, 다음 세대를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졸업 이후 미드퍼시픽의 변화에 대해 반추하며, 조던은 학교 시설의 개선과 교육 접근 방식에 특히 감명받았어요. "다양한 학습 경로를 수용하는 교육 방식의 진화는 우리 학생들이 안팎으로 생각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라고 그는 언급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조던은 미래를 바라보며 가족과 미드퍼시픽에 대한 그의 초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MPI에서 자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가장 큰 자부심은 제 가족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저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저를 지지해줬고, 되돌려주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어요"라고 그는 공유합니다.

조던 오카다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취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속성, 그리고 미드퍼시픽에 대한 진정한 헌신의 서사입니다. 이는 모든 동문들이 그들의 모교의 지속적인 유산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조던과 그의 아내 타린, 그리고 자녀 조슈아 '28와 에밀리의 가족사진.